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석기생산 시스템 연구

황 창 한
울산문화재연구원

〈목 차〉

- | | |
|-----------------------|-----------------------|
| I. 머리말 | 1. 전기의 석기생산 시스템 |
| II. 석기생산에 대한 연구약사 | 2. 후기의 석기생산 시스템 |
| III. 석기생산 취락의 설정 및 유형 | 3. 대구지역 석기제작 전문집단의 성립 |
| 1. 석기생산 취락의 설정 | VI. 석기의 제작과 유통 |
| 2. 석기생산 취락의 유형 | 1. 석재의 산지 및 조달 |
| IV. 유적의 검토 | 2. 고령일대의 석기제작관련 유적 |
| 1. 지역권 설정 | 3. 석기의 제작과정 검토 |
| 2. 유적의 검토 | 4. 석기의 유통 |
| V. 석기제작 전문취락의 성립과 전개 | VII. 맺음말 |

I. 머리말

청동기시대 석기에 대한 연구는 관련 자료와 연구자가 증가되면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기존의 석기연구가 토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편년, 계통연구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했었다면 최근의 연구기류는 제작기술, 산지추정, 생업의 형태, 생산시스템, 유통, 교류 등 청동기시대 사회시스템 복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본고의 목적은 대구지역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취락의 석기생산 시스템에 대한 검토이다. 대구지역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자연 지리적으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청동기시대 전기에서 후기까지 연속적인 변화상을 파악할 수 있는 양호한 취락유적과 더불어 석기생산과 관련된 다수의 유적이 조사되어 검토대상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연구방법은 석기생산취락의 설정 및 유형에 대해 기존의 연구성과를 참조하여 제시하고, 대구지역에서 발굴조사된 석기제작관련 취락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통해 청동기시대 전기에서 후기로의 이행과정에서 석기생산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고, 석기생산 전문취락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검토대상 유물은 혼펠스제 석기를 중심으로 하고 마제석검의 분석을 통해 생산과 유통에 대한 모델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석기생산에 대한 연구약사

석기생산과 관련한 기존의 견해는 석기를 검토하면서 전문제작집단에 대한 가능성 등 단편적으로 추정하여 언급한 사항은 제외하고 2000년대 이후에 유적과 유물의 분석을 통해 연구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이인학(2010)은 호서지역과 영서지역의 유적 중에서 석기가 100점 이상 출토된 유적을 대상으로 취락 내 석기의 제작양상을 검토하였다. 그는 석기제작과 관련한 가공구의 출토 유무와 유구 내 석기 제작 흔적의 잔존 여부 등을 근거로 취락 내 석기제작 양상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폈다. 석기생산과 관련한 주거지에 대한 판별은 제작관련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 석기 가공구와 미제품이 세트 관계를 이루어 출토되는 경우, 석기 가공구는 출토되지 않고 석기 부산물이나 미제품 등만 확인되는 경우로 설정하였다. 반면 지식의 경우는 마제석기를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출토된 경우에는 간단한 석기의 수리나 재가공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석기생산 주거지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석기의 제작양상은 구릉과 충적지가 각각 다르게 확인되며, 다른 취락으로 공급할 정도의 석기제작 취락이 확인된다고 하였다.

손준호(2010)는 석기생산과 관련된 최근의 발굴자료를 중심으로 원재료의 채취부터 취락 내 제작과정, 취락간 제작 양상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청동기시대 석기 제작 체계의 종합적인 복원을 시도하였다. 분석대상 취락은 비교적 대단위 취락 가운데, 석기의 제작과 관련된 시설이 조사되거나 가공도구, 부산물, 미제품 등이 다수 확인된 것으로 한정하였다. 분석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인학(2010)의 연구를 토대로 석기 제작 부산물인 박편을 주목하여 순수 박편이 5점 이상 출토되었을 경우와, 지석이 단독으로 출토되는 경우에도 비교적 거친 입자의 지석이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기준을 확대하여 검토대상에 포함시켰다. 검토 결과로서 전기에는 취락 내 소비를 목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며, 일부 다른 취락과의 교역을 위한 생산 유적의 존재를 상정하였다. 후기에는 소수의 자가소비 취락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검토 대상 유적에서 취락 내 소비량을 넘어서는 생산, 즉 교역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이 확인되며 이러한 유적들을 석기제작 전문취락이라 설정하고 그 성격에 대해 어느 정도의 반전업적 전문 제작집단으로 상정하였다.

홍주희(2009)는 북한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석기제작시스템의 확립에 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그는 청동기시대 전기 중·후엽 주거지의 내부구조 변화와 공방지의 출현이 석기의 제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석재는 산지로부터 입수하여 보관·선별·분할·분배는 공방지에서 공동작업을 통하고, 분배된 석재를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석기의 세

부 제작공정은 개별주거지에서 행해지는 석기제작시스템의 확립과정을 제시하였다. 즉 석기 제작시스템의 확립은 취락 내 독립적인 공방지의 출현과 관련이 깊으며, 전문 생산체계의로의 발전과정에서 과도기로서 농경 위주보다는 다양한 생계활동을 기반으로 삼아 계급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유적을 검토하여 공방지를 설정한 것과 이를 근거로 석기제작 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신선하다. 다만 공방으로서 제시한 이색점토구역이 과연 석기제작과 관련한 공방으로서 어떤 관계가 있는 시설인지 혹시 방습 등 취락의 구조와 더욱 관련이 높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며, 석재의 공동관리와 분배 등에 관한 견해도 어느 정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장용준·平郡達哉(2009)는 유절병식마제석검의 검토를 통해 매장지례의 공유를 검토하였는데 석검의 형태적 유사성을 들어 숙련된 제작자, 기술적인 표준이나 설계도가 없다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일부 유물의 경우는 실제 동일한 사람이 제작해서 유통시켰음을 확신하고 있다. 즉 유절병식석검은 석기자체를 거점지역에서 제작한 후 유통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함을 추정하고, 석검의 제작활동이나 공인의 이동이 사회 내부의 통제 혹은 관리를 받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하였다. 석검의 제작지로서는 제작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유구의 부재로 구체적인 지역을 설정하는 것은 유보적인 입장이며, 제작장과 같은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이유를 세 가지 정도 추정하였다.

황창한(2011)은 장용준·平郡達哉(2009)의 유절병식석검연구를 토대로 석검 재질의 특수성에 착안하여 제작지를 구체화 하였다. 먼저 이단병식석검의 석재는 이암, 편암 등 각지에서 석재를 조달하여 집단 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되지만, 유절병식석검부터는 재질이 혼펠스 일색으로 변화한다는 점을 간취하여 제작지가 석재의 산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혼펠스는 경상분지 내에 폭넓게 분포하지만 그중에서도 석검을 제작할 수 있는 혼펠스 석재는 현재까지 고령의 의봉산에서 산출되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석검제작과 관련유적으로서 고령 의봉산 일대에서 확인된 봉평리 575-1유적, 대흥리 유적 등에서 확인된 대규모 석기제작장 유적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결론으로서 유절병식석검의 제작지는 고령과 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였다.

조대연·박서현(2013)은 중부지역 취락 출토자료를 중심으로 청동기시대 석기생산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석기생산 주거지의 존재 여부의 판단은 이인학, 손준호 등의 선행연구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였다. 그가 제시한 기준은 취락 내 석기생산 주거지의 유물상을 일반주거지의 유물상과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택하고, 특정 석기기종의 집중적 생산이 확인될 경우 이를 생산전문화의 지표로서 삼았다. 또한 홍주희(2009)가 제시한 이색점토구역이 있는 주거지의 경우도 이색점토구역과 작업공이 동시에 확인된 경우로 한정

하였다. 석기생산 주거지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 점이 흥미롭다. 분석결과로서 석기생산주거지가 후기에 높아지지 않아 석기생산 전문취락의 등장에 대한 기존의 견해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반면 각 유적별로 전문적으로 생산되는 기종이 등장함으로써 석기생산전문화의 징후가 이미 전기에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최근의 석기생산에 관한 연구를 종합해 보면 석기생산과 관련한 취락 또는 주거지의 설정에 있어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물론 기본적인 안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연구자에 따라 분류안이 다르게 제시되는 것은 기존에 문제점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취락 내에서 석기제작과 관련된 뚜렷한 유구가 확인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과 취락 내에서 석기자료의 밀집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례가 없기 때문(손준호 2010)이다. 또한 석검과 같이 특수성이 인정되는 석기를 제외한 다른 기종의 사례를 통해 석기생산의 전문집단 또는 전업집단 등에 관해 논의되고 있지만 과연 어느 정도의 범위를 넘어서면 자가소비 단계를 넘어서는 것인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분석기준에 따라 결과의 양상도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석기생산과 관련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자료의 한계와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취약한 상황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지만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수용하여 논지를 전개시키고자 한다.

Ⅲ. 석기생산 취락의 설정 및 유형

1. 석기생산 취락의 설정

청동기시대 석기의 생산은 자가소비 단계에서 전문생산집단의 등장을 상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구단위와 취락단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구단위의 석기생산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취락단위의 석기생산은 이보다 진전된 전문화 또는 전업화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가소비형 석기생산은 가구단위로 이루어지거나 취락내에서 석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가구 즉 전문장인의 가능성, 그리고 공동생산 분배방식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양상을 유적에서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취락단위의 석기생산은 자가소비 외에 교류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석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석기생산과 관련한 취락의 설정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이다. 자가소비형과 전문생산형을 구분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그 성격이 확연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전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금까지 논의된 석기생산과 관련한 일련의 논고에서도 그 기준과 정의가 모호한 점이 없지 않다. 사실 이러한 기준 설정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석기생산 취락, 주거지의 설정 기준은 앞으로도 많은 논의와 논란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양상은 유적이나 유물을 기준으로 어느 선을 딱 그어서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역시 석기생산 취락과 주거의 기준 설정에서 발생할 비판에 대해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선험들의 경우와는 가시적으로 차별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동의를 구할 수밖에 없다. 즉 고고학적 의미 부여에 불리한 측면이 다분하여 가시적인 기준으로 개념을 한정해 보는 것(배진성 2012)이 오히려 객관적일 수 있지 않을까.

본고에서 석기생산과 관련된 주거 단위의 확인은 타 주거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석기제작과 관련한 흔적들이 확인되는 빈도에 따라 구분하고자 하는데 주거간의 상호비교를 통한 조대연·박서현(2013)의 견해를 수용하여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취락의 시기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여 취락 내에서 출토된 석기의 총량을 주거수로 나누어 주거지 1기당 석기보유량을 파악하고 취락간 비교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한편 석기제작관련 전문취락의 설정은 취락간 비교와 입지, 제작장의 운영 등을 근거로 상정하고자 한다. 먼저 입지적인 면에서는 하천변의 선상지로서 취락 내에 하도가 발달하여 마연을 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곳이며, 석기제작장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제작관련 부산물이 타 유적에 비해 뚜렷이 차별되어 확인되는 경우를 석기생산 취락으로 상정하고자 한다.

2. 석기생산 취락의 유형

이론적으로 전문장인은 취락 내에서 석기제작과 관련된 유물의 빈도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고 취락간 석기생산관련 유물의 비교를 통해서 전문취락을 상정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상대적인 것으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석기생산 취락의 유형은 자가소비형, 분업형, 반전업형, 전업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취락내 주거단위로서 자가소비형 주거, 분업형 주거, 반전업형 주거, 전업형 주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자가소비형 취락은 취락 내에서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가구단위의 가구소비형, 취락내 장인생산형, 공동생산분배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업형 취락은 사회적 직업의 분업이라는 의미보다는 공정의 분업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즉 석기의 제작공정에서 1차 석재의 확보 및 형태 정형과 2차 정형, 3차 마연 완성 등의 공정이 취락 또는 주거간에 분리된 시스템을 말한다.

반전업형 취락은 취락 내 자가소비 단위의 반전업형 장인과 석기생산 전문취락으로서의

반전업형을 설정할 수 있다. 취락의 생계를 농경을 기반으로 하되 석기의 생산과 관련된 제작품의 유통을 통해 생계의 비중이 분산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전업형 취락은 석기생산만으로 취락의 생계가 유지되는 형태를 뜻한다. 이러한 형태는 國 단계에 형성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여기서는 유형으로서 제시해 두고자 한다.



도면 1.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분포(하진호 2013에서 전제)

IV. 유적의 검토

1. 지역권 설정

대구지역은 한반도의 동남부에 위치한 영남내륙의 중심지로 북쪽에는 팔공산, 남쪽에 대덕산과 비슬산, 동서로는 완만한 구릉지, 서남쪽으로는 개활지가 펼쳐져 있다. 전체적으로는 분지지형을 이루고 있는데, 신천이 도심을 가로질러 금호강과 합류하여 부산, 경남지역으로 흐르는 낙동강에 유입되고 있다. 본고에서 대구지역을 검토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 지역이 청동기시대취락이 전기에서 후기에 걸쳐 연속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시적으로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다(하진호2008)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구분지를 가로지르는 금호강과 기타 소지류에 의해 지역적 경계가 뚜렷해 권역을 분리해 검토하기에 유리하다. 이러한 지리적 특징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지역에서 석기제작과 관련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각 유적에서 매우 양호한 상태로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하진호(2008)는 대구지역을 수계에 의해 진천천, 신천, 팔계천, 동화천유역으로 구분하고 주거지와 토기의 분석을 통해 취락을 검토한 바 있다. 본고의 지역권과 편년안은 이를 수용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2. 유적의 검토

1) 진천천유역권

진천천은 대구의 남서단에 위치하는데 동에서 서로 흘러 낙동강으로 합류하는 지류에 해당한다. 이 일대에서는 다수의 청동기시대 생활유적과 매장유구가 확인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조사된 지역은 월성동, 상인동, 대천동일대이다. 유적의 시기분포는 청동기시대 전기에서 후기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진천천유역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의 생활유적이 확인되었다.

① 대천동 일대 유적

대천동 일대의 유적은 대구 대천동 511-2번지유적(영남문화재연구원 2009), 대천동 497-2번지유적(영남문화재연구원 2008) 등이 조사되었다.

대천동 511-2번지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16기, 석관묘 68기, 수혈 7기, 구상유구 1기가 조사되었다. 본 유적과 인접해서 대천동 497-2번지유적, 대천동 413유적 등이 조사되었는데 동일한 유적으로 파악하여 살펴보겠다. 이 일대의 유적에서는 전기~후기에 걸쳐 형

성된 장방형, 방형, 원형주거지가 확인되었다. 대천동 511-2유적의 경우 16동의 주거지 중에서 11동에서 석기제작과 관련된 유물로 지석, 고석, 박편, 미완성석기 등이 출토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석기제작과 관련된 유물은 소략한 편이다. 또한 주거지 주변에서 확인된 구상유구, 수혈 유구에서도 석기제작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을 보이는 유물은 빈약하다.

표 1. 대천동 511-2유적

주거지		고석	지석	박편	연석	편인	석착	석촉	석촉 미완	석도	석재	석기보유 평균수량
가수	시기											
7	전	1	5	2	1	1	1	0	1	1	1	2.0
9	후		13	6	1	1	1	1				1.6

② 월성동·송현동 일대 유적

월성동 일대에서는 대구 월성동 585유적(영남대학교박물관 2007), 월성동 1275유적(영남대학교박물관 2006), 월성동 1261유적(영남문화재연구원 2007), 월성동 1363유적(대동문화재연구원 2008), 월성동 591유적(성림문화재연구원 2009), 월성동 498유적(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9), 월성동 선사유적(경북대학교박물관 1991, 2000), 송현동 선사유적(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2002) 등이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석기제작과 관련된 주거지의 양상은 대천동 일대의 유적과 동일한 양상이다. 장방형 주거 취락으로 구성된 월성동 585유적에서는 3호 주거지에서 지석 6점이 확인되었고 나머지 주거지에서는 한 점도 출토되지 않은 점이 특이하다. 원형주거 취락으로 구성된 월성동 1363유적에서도 석기제작과 관련된 지석 등이 거의 출토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주거지에서 지석, 미완성석기 등이 출토되었으며 다른 취락에 비해 지석의 출토율이 높다.

또한 집석유구에서도 지석, 미완성편인석부, 박편 등이 무문토기와 함께 출토되었는데 석기를 제작한 후 폐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월성동 일대의 유적 주변에서 확인된 구상유구 등에서도 석기제작과 관련한 유물보다는 토기의 폐기 또는 의례로 볼 수 있는 상황만 확인되었다. 그런데 월성동 일대의 유적 가운데 석기제작과 관련된 유물이 가장 두드러지게 확인된 유적은 전기에 해당하는 월성동 591유적, 월성동 498유적, 월성동선사유적, 송현동선사유적으로 동일 지역에 입지한다. 특히 월성동 498유적에서는 하도에서도 다수의 미완성석기류가 출토된 점이 특징이다.

유물의 구성으로 볼 때 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집단에서 석기를 제작하여 인접집단에 공급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만하다.

표 2. 월성동 1275유적

주거지		지석	박편	연석	편인 석부	합인 석부	석촉	석촉 미완	방추차	석도	옥	석재	석기보유 평균수량
기수	시기												
5	전	4	1	1	3	1	0	0	1	0	0	1	2.4
12	후	6	5	0	0	0	1	1	1	1	1	1	1.4

표 3. 월성동 591유적

주거지		지석	박편	연석	편인 석부	석촉	석촉 미완	주상 파손	석도	방추차	환상 석부	석재	석기보유 평균수량
기수	시기												
7	전	14	1	3	7	3	2	1	1	1	1	1	5.0

표 4. 송현동 선사유적

주거지		지석	미완성	연석	합인 석부	편인 석부	석촉	석촉 미완	석검	석도	환상 석부	방추차	원판형	대석	석기보유 평균수량
기수	시기														
14	전	29	6	1	4	19	13	2	3	11	1	3	1	1	6.7

표 5. 월성동 476-2유적(월성동 선사유적)

주거지		지석	박편	미완성	연석	합인 석부	편인 석부	석촉 미완	주상 석부	석검	석도	방추차	석기보유 평균수량
기수	시기												
5	전	18	2	5	1	3	8	15	1	3	2	2	12

표 6. 월성동 585유적

주거지		지 석	편인 석부	석촉	석촉 미완	석검 미완	석창	석창 미완	석도	방추차	석재	석기보유 평균수량
기수	시기											
5	전	6	2	2	3	1	1	1	2	1	1	4.0

표 7. 월성동 1363유적

주거지		지석	편인 석부	편인 미완	석촉 미완	석창 미완	석기보유 평균수량
가수	시기						
5	후	1	1	1	2	1	12

표 8. 월성동 498유적

주거지		박편	연석	편인 석부	석촉	석검	석기보유 평균수량
기수	시기						
6	후	2	1	2	1	1	1.2

표9. 월성동 498유적

유구	고석	지석	박편	합인 석부	연석	편인 미완	주상 석부	석촉	석촉 미완	석도	방추차	석검	부리형
1호 구										1	1		
3호 구				1									
6호 구			1										
7호 구			1										
하도유물군	3	1	8	5	1	9	3		1	1	1	2	1
하도집석1		3	1			3	1						
하도집석2		1	2				1						
하도1층	1	4	2			5	9	1				2	
하도자갈층					2	1	1						
하도2층		1		1?		7	3	1	1			3	
계	4	10	15	7	3	25	18	2	2	2	2	7	1

③ 상인동 일대 유적

상인동 일대에서도 다수의 청동기시대 유적이 확인되었는데 상인동 87번지유적(영남문화재연구원 2000), 상인동 119-20유적(대동문화재연구원 2011), 상인동 152-1유적(영남문화재연구원 2007), 상인동 171-1유적(영남문화재연구원 2006), 상인동 123-1유적(영남문화재연구원 2007), 상인동 128-8유적(삼한문화재연구원 2010), 상인동 98-1유적(대동문화재연구원 2008) 등이 있다.

전체적인 석기의 출토양상은 대천동, 월성동 일대의 유적과 유사한 양상이다. 후기의 유적에 해당하는 상인동 87유적의 경우 전체 18동의 주거지에서 석기와 관련된 유물이 소량하고 제작과 관련된 유물도 거의 출토되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상인동 119-20유적의 경우도 늦은 시기에 해당하는 원형계 주거지에서 석기관련 유물이 빈약하고 전기의 장방형, 방형계 주거지에서 석기의 출토비율이 높으며, 제작관련 유물도 다수 확인되었다.

진천천유역의 석기제작 양상은 전반적으로 취락 내에서 개별 주거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유통을 목적으로 할 만큼의 석기나 제작관련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진천천유역 내에서 취락간의 비교를 통해 본다면 월성동 498유적에서 석기제작관련 유물이 다른 취락에 비해 두드러지게 확인된다. 따라서 진천천일대의 취락내에서 월성동 498유적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유통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10. 상인동 128-8유적

주거지 기수 시기		지석	박편	미완성	연석	합인 석부	편인 석부	주상 석부	석촉	석촉 미완	석검	석도	방추차	원판형	석구	석채	석기보유 평균수량
11	전	6	6	3	3	1	5	1	2	4	4	3	1	1	0	6	4.2
5	후		16	1	0	0	1	0	1	0	1	0	0	0	1		4.2

표 11. 상인동 119-20유적

주거지 기수 시기		지석	박편	연석	주상 석부	박편 석기	석촉	석촉 미완	편인 석부	환상 석부	석도	석창 미완	석검 실패	석창	석기보유 평균수량
5	전	6	1	3	7	5	3	1	4	3	3	1	2	1	8.0
5	후	2	3												1.0

표 12. 상인동 123-1유적

주거지 기수 시기		지석	박편	미완성	연석	합인 석부	편인 석부	주상 석부	석촉	석촉 미완	주상 석부	석검	석도	방추차	석기보유 평균수량
11	전	1	0	4	1	1	8	1	3	5	2	4	1		3.1
9	후		1	1								1	1		0.5

표 13. 상인동 98-1유적

주거지 기수 시기		지석	박편	미완성	연석	합인 석부	편인 석부	주상 석부	석촉	석촉 미완	석검	석도	석기보유 평균수량
8	전	4	9	1	2	2	6	2	0	2	1	1	3.8
3	후		1						1				0.7

표 14. 상인동 87유적

주거지		지석	박편	연석	주상미완	박편석기	석촉	석창	석기보유 평균수량
기수	시기								
18	후	1	1	1	2	1	1	1	0.5

2) 신천유역권

① 대봉동 마을유적(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6)

대봉동 유적에서는 35동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대부분 장방형이고 시기는 전기에 해당한다. 석기제작과 관련한 유물은 지석을 중심으로 미완성 석부류가 출토되었는데 대부분의 주거지에서 고르게 분포하는 양상이다. 취락 내에서 확인된 수혈과 구상유구에서도 석기제작과 관련된 유물이 소량 출토되었는데 특히 4호 구상유구에서 집중도가 높다. 전체적으로 대봉동 유적의 석기제작은 주거 단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4호 구상유구는 석기제작이 이루어지거나 토기, 석기파손품 등을 폐기하는 장소로 추정된다.

대봉동마을유적은 진천천유역의 월성동일대의 유적과 유사한데 신천유역의 취락에 부분적으로 석기를 공급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② 상동유적(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2, 2004)

상동유적(수성초등학교 부지)에서는 20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는데 대부분 방형주거지이다. 취락에 비해 완전한 석기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고 석기제작과 관련한 유물도 박편이 소량 출토되었을 뿐이다. 상동유적(우방아파트 부지)에서는 15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는데 대부분 장방형 주거지이다. 수성초등학교 부지와 동일한 양상으로 전체적으로 석기의 출토량이 빈약하며 소량의 박편이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상동유적은 전체적으로 인접 집단에 비해 석기의 출토량이 빈약한 점이 특징이다.

신천유역권도 진천천유역과 동일한 양상인데 전기의 취락에서는 비교적 다수의 석기와 제작관련유물이 확인된 반면 후기의 취락에서는 극히 빈약한 편이다.

표 15. 대봉동 마을유적

주거지		고석	지석	박편	연석	합인미완	편인석부	석촉	석촉미완	주상미완	부리형	석도	석도미완	석검실때	원판석기	방추차	석구	석재	석기보유 평균수량
기수	시기																		
28	전	1	34	6	4	6	19	7	2	7	2	4	12	2	2	4	2	9	4.4
4	후		2	2	0	0	0	0	1	0	1	0	0	1	0	0	0	1	2.0

표 16. 대봉동 마을유적

유구	형태	지석	박편	연석	합인석부	편인미완	석촉	석촉미완	석도미완	석구	석재
4호 구		7	2	1	1	2	3	3	4	2	1

표 17. 상동유적(수성초등학교)

주거지		지석	박편	편인석부	석촉미완	석기보유 평균수량
기수	시기					
6	전		5	2		1.2
14	후	1	10		1	0.9

표 18. 상동유적(우방아파트)

주거지		지석	박편	편인 석부	석촉	석촉 미완	주상 미완	부리형	석도	석기보유 평균수량
기수	시기									
7	전	4	8	2	1		3			2.6
8	후		6			2		1	1	1.3

3) 팔계천유역권

① 매천동유적(영남문화재연구원 2010)

매천동유적은 팔계천의 남쪽 초입에 위치한다. 청동기시대 전기에서 후기에 걸쳐 형성된 유적으로 중심 시기는 전기에 해당한다. 본 유적에서는 주거지와 하도에서 다수의 석기제작 관련 유물이 출토되었다. 석기제작은 하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합인석 부류, 이단병식석검 미완성품이 다수 확인된 점이 특징이다.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전기후반의 취락으로서 석기를 제작했던 전문집단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과도기적인 유적이라 평가될만하다.

② 동천동취락유적(영남문화재연구원 2002)

동천동취락유적은 경상북도의 최북단에서 대규모로 확인된 대표적인 송국리형 취락으로 잘 알려져 있다. 유적에서 주거지는 모두 60동이 확인되었는데 이중 송국리형 주거지가 47동이며 나머지는 말각방형에 해당한다. 석기가 출토된 주거지는 17동을 제외한 43동이다. 대부분 미완성석기류와 지석 등이 출토되어 석기제작과 관련성이 확인된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청동기시대 하도 및 집석유구에서 타 집단과는 차별될 정도로 많은 양의 미완성 석기류 및 파손품, 박편, 지석 등이 출토되어 석기제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개별 주거지로 본다면 동시기 다른 유역의 집단과 주거지 1기당 석기보유량에서 압도적으로 차별되며, 하도, 집석 등에서 대규모로 석기제작의 흔적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취락 내에서 석기제작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동천동 취락은 석기생산 전문취락으로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 동호동 일대 유적

동호동유적은 동천동취락유적의 상류에 위치하는데 북쪽으로 약 2km지점 일대에 분포한다. 발굴조사된 유적으로는 동호동 181번지 유적, 동호동 477유적, 동호동 451유적, 동호동

(대구체육고등학교 부지)유적 등이 있다. 동호동 일대의 유적에서는 전반적으로 소규모 취락만 확인되었고 수혈, 구상유구, 하도 등이 집중적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석기제작과 관련된 유물은 하도와 구상유구를 중심으로 확인되었다. 이 일대의 취락은 시기 및 입지적으로 볼 때 동천동취락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팔계천 일대의 청동기시대 취락을 종합하면, 팔계천 초입에 위치하는 전기후반의 매천동 유적을 중심으로 석기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후기에는 상류의 개활지로 확대되면서 동천동, 동호동 일대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석기제작과 관련된 유구로서 다수의 제작장이 확인되었으며, 하도에서 제작이 이루어졌다. 즉 동천동취락을 중심으로 석기제작 전문취락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19. 동천동 취락유적

주거지		지석	박편	미완 석기	편인 석부	석촉	석촉 미완	주상 미완	석착	부리형	석도	석검	방추차	석창	천공구	석재	석기보유 평균수량
가수	시기																
60	후	37	274	44	9	16	7	3	4	1	2	4	2	1	3	20	7.1

표 20. 동천동 취락유적

호수	석제품	
	수량	특징
집수지2호	209	지석, 편인석부, 주상석부, 석촉, 석검, 부리형석기, 박편 등 다수
하도1층	307	지석, 편인석부, 주상석부, 석도, 석검, 석착, 박편 등 다수
하도2층	158	지석, 편인석부, 주상석부, 석도, 석검(유절병식), 박편 등 다수
문화층	148	지석, 편인석부, 석검, 석도, 주상석부, 박편, 선형석기 등 다수
계	822	

표 21. 동호동181유적

주거지		지석	박편	편인 석부	주상 석부	석검	방추차	석재	석기보유 평균수량
가수	시기								
6	후	6	1	4	1	1	1	4	3.0

표 22. 동호동181유적

호수	출토석제품	
	수량	특징
A1호 구	7	미완성 · 파손품 · 박편
A2호 구	91	이단병식석검, 석부, 석도, 지석, 파손품, 미완성품 등 다수
계	98	

표 23. 동호동유적(대구체육고등학교)

호수	출토석제품	
	수량	특징
가층	10	미완성편인석부, 박리몸돌, 박편, 제작파손품 등
나층	20	지석, 미완성편인석부, 박리몸돌, 박편, 제작파손품 등
구1호	21	지석, 석촉, 석도, 미완성편인석부, 박리몸돌, 박편, 제작파손품 등
구2호	11	지석, 미완성편인석부, 박리몸돌, 박편, 제작파손품 등
구3호	26	지석, 미완성편인 · 주상석부, 석검실패품?, 박리몸돌, 박편, 제작파손품 등
구3호 집석	19	지석, 박편, 박리몸돌 등
구3-1호	3	미완성박리제품, 박편 등 240
구7호1층	240	지석, 미완성편인 · 주상석부, 석검실패품?, 박리몸돌, 박편, 제작파손품 등
구7호2층	17	석도, 석검, 석촉, 부리형석기

표 24. 동호동 477유적

호수	시대	출토석제품	
		수량	특징
구상2호	청동기	10	지석, 박편, 박리품들, 석검(이단병식) 등
하도2호	삼국?	37	지석, 박편, 박리품들 등

표25. 동호동 451-1유적

호수	시대	출토석제품	
		수량	특징
수혈2호	청동기	1	박편
수혈4호	청동기	2	박편
구상1호	청동기	23	박편, 석촉, 편인미완성 등
구상2호	청동기	5	박편

표 26. 매천동유적

주거지		지석	박편	미완 성품	연석	합인 석부	편인 석부	석촉	석촉 미완	주상 석부	부리형	석도	석검	방추차	석재	석기보유 평균수량
기수	시기															
9	전	12	6	1	1	2	4	2	1	2	5	1	1	1	2	4.6
4	후	1	9	1					3							3.5

표 27. 매천동유적

유구	출토석제품	
	수량	특징
1호 수혈	4	박편
하도A구간	67	석촉, 석도, 환상석부, 편인석부, 합인석부, 주상석부 방추차, 부리형, 석검, 박편, 지석 등
하도B구간	53	
하도C구간	159	
하도D구간	91	
하도E구간	23	
하도F구간	1	석검신부편
하도 가	2	환상석부, 박편
하도 나	27	석촉, 석도, 환상석부, 편인석부, 합인석부, 주상석부 방추차, 부리형, 석검, 박편, 지석 등
하도 다	27	
하도 라	40	
1호 구상	1	지석
3호 구상	2	연석세트
계	497	

4) 동화천유역권

동화천유역에서 확인된 대규모 취락유적은 서변동유적(영남문화재연구원 2002, 2013)이 대표적이다. 본 유적에서는 주거지 48동을 비롯해 집석유구, 하도 등이 확인되었다. 석기제작과 관련된 유물은 주거지와 하도에서 출토되었는데 전기에 해당하는 팔계천유역의 매천동유적에 비해 소규모이며, 진천천유역의 월성동 일대의 유적과 유사한 양상으로 동화천일대의 동시기 유적에 일부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표28. 서변동 취락유적

주거지 기수	시기	지석	박편	미완 석기	연석	합인 석부	편인 석부	석촉	석촉 미완	주상 미완	석창	부리형	석도	석검	방추차	성형 석기	환상 석부	석구	석재	석기보유 평균수량
31	전	65	88	25	1	2	36	11	2	10	6	1	15	6	4	1	1	1	8	9.1
14	후	5	34	7	0	1	2	3	3	2	0	0	1	0	0	0	2	0	10	5.0
4	?	3	17	2	0	0	3													6.3

표29. 서변동 취락유적

호수	출토석제품	
	수량	특징
하도2호	2	
하도5호	66	지석, 방추차, 편인석부, 주상석부, 석촉, 합인석부, 석창 등

V. 석기제작 전문취락의 성립과 전개

앞장에서 대구지역을 수계에 따라 네 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대표적인 취락을 검토하였다. 본 장에서는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에서 석기의 생산시스템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겠다. 동일 지역권 내에서 각 취락간의 비교를 통해 석기제작에 관한 문제에 접근하고, 전체적으로는 지역권의 비교를 통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전기의 석기생산 시스템

대구지역에서 청동기시대 전기유적의 분포는 진천유역과, 신천유역에 집중 분포하며 동화천유역과 팔계천유역은 상대적으로 분포가 떨어진다. 이 시기의 석기생산과 관련한 유물은 수혈 및 하도 등에서 부분적으로 출토되지만 대부분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점이 특징이다. 취락 내 개별 주거지별로 살펴보면 석기제작관련 도구 및 흔적인 지석, 박편, 미완성품 등이 출토된 주거지와 출토되지 않은 주거지로 구분되지만 특별히 석기의 제작관련 유물의 빈도가 높게 확인되거나 두드러지는 경향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각 수계에 형성된 취락간의 석기제작관련 유물의 출토상황을 대비해 살펴보면 다소 흥미로운 점이 간취된다. 비교적 대형취락을 중심으로 석기의 출토빈도와 제작관련 도구의 출토율이 높게 확인된다는 것인데, 진천천유역의 월성동일대의 유적, 신천유역의 대봉동마을유적, 동화천유역의 서변동 취락유적 등이다(표30 참조).

먼저 진천천유역의 취락 중에서 월성동 498유적에서는 원형주거 취락과 하도가 확인되었

다. 주거지에서는 석기제작과 관련된 유물이 거의 출토되지 않았지만 하도에서는 비교적 많은 석제유물이 출토되었다. 그런데 하도 출토유물 중에서 석검이 7점 확인되었는데 1점만 유경식이고 나머지는 이단병식석검으로 청동기시대 후기로 편년되는 원형주거 취락과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따라서 하도와 동일 범주에 해당하는 월성동 591유적의 장방형 주거 집단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월성동 591유적에서는 대부분의 주거지에서 지석과 미완성석기류 등이 출토되었다. 따라서 월성동일대의 취락에서 석기를 생산하여 진천천유역에 입지한 상인동, 대천동 일대의 취락으로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표 30. 유역별 주거1기당 석기 평균출토수량

유역명	유적명	주거1기당 석기 평균 출토수량	
		전기	후기
진천천유역	대천동511-2	2.0	1.6
	월성동585	4.0	
	월성동1363		1.2
	월성동1275	2.4	1.4
	월성동591	5.0	
	월성동선사	12.0	
	월성동498		1.2
	송현동선사	6.7	
	상인동123-1	3.1	0.5
	상인동87		0.5
	상인동119-20	8.0	1.0
	상인동98-1	3.8	0.7
	상인동128-8	4.2	4.2
신천천유역	대봉동마을	4.4	2.0
	상동(수성초)	1.2	0.9
	상동(우방)	2.6	1.3
팔계천유역	동천동취락		7.1
	동호동181		3.0
	매천동	4.6	3.5
동화천유역	서변동취락	9.1	5.0

신천유역에서는 대봉동마을유적에서 석기제작과 관련된 유물이 다수 출토되었다. 주거지에서는 지석과 박편이 출토된 비율은 약 50% 정도이며, 수혈과 구상유구에서도 지석과 박편, 미완성석기류가 출토되었다. 대봉동마을유적의 중심 시기는 전기 중엽~후엽으로 편년되는데 이 일대에서 동시대의 유적이 확인된다면 진천천유역의 월성동일대의 유적과 동일한 성격의 취락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상동유적(우방아파트부지)에서는 장방형주거지에서 석기제작관련 유물이 확인되었고, 후기의 방형과 원형주거지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양상은 방형주거 취락유적인 상동유적(수성초등학교부지)에서도 동일한 양

상으로 확인된다. 신천유역의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대봉동마을유적보다 시기적으로 후행하는 후기의 유적에서 석기제작과 관련된 유물이 빈약한 점으로 볼 때 취락 내에서 부분적으로 석기제작이 이루어졌지만 인접한 다른 취락으로부터 석기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화천유역의 전기유적은 서변동취락유적이 대표적이다. 서변동취락유적은 전기의 장방형계 주거지와 후기의 방형, 원형주거군으로 구분되는데 취락의 중심은 전기에 해당한다. 전기에 해당하는 장방형계 주거지와 하도에서 다수의 석기제작관련유물이 출토되었다. 특히 청동기시대 5호 하도에서 약 66점의 석기가 출토되어 하도를 중심으로 석기제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거지와 하도의 전체적인 양상으로 볼 때 부분적으로 인근취락에 공급의 가능성은 있으나 석기를 전문으로 제작한 집단으로의 상정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전기의 취락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팔계천유역의 매천동유적이다. 매천동유적에서는 전기의 취락 중에서 주거 1기당 석기의 평균출토량이 4.6점으로 높은 편이며, 하도를 석기제작에 적극 활용한 점이 타 지역의 전기유적에 비해 두드러진다. 하도에서 확인된 다수의 미완성품과 파손품, 지석, 박편 등 제작관련 유물의 빈도는 타 지역의 양상과는 가시적으로 뚜렷하게 차별된다. 유물 중에서 함인석부의 비중이 높은 점이 특징이다. 매천동유적의 편년은 전기에서도 늦은 단계에 해당하는 시기가 중심으로 팔계천유역에 석기제작 전문취락의 징후를 알 수 있는 유적으로 평가될 만하다.

2. 후기의 석기생산 시스템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후기의 취락은 방형계와 원형계 주거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네 개의 하천유역에서 모두 확인되지만 특히 팔계천유역의 동천동일대의 취락이 주목된다. 표30과 같이 팔계천유역의 동천동유적을 제외한 나머지 세 곳의 유역에서 확인된 후기의 취락에서는 석기제작과 관련된 유물이 극히 빈약한 편으로 극명하게 대비된다. 동천동유적에서는 동시기 타 지역의 주거지 1기당 석기출토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확인된다. 석기의 제작양상은 하도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이를 볼 때 대구지역의 청동기시대 후기의 석기제작은 팔계천유역의 동천동취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대구지역 후기의 취락에 유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동천동취락의 북쪽에서 확인된 동호동 일대의 유적에서도 석기제작과 관련된 유물이 다량 확인되었는데 동천동취락과 연장선상에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3. 대구지역 석기제작 전문집단의 성립

상기한 바와 같이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석기제작 시스템을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여 취락 간, 유역간의 비교를 통해 추정해 보았다. 그 결과 전기의 석기제작은 기본적으로 각 취락 내에서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제작하지만 인접한 취락 내에서도 다른 취락과 뚜렷이 구분되는 취락에서 부분적으로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전기후반에 팔계천유역의 매천동유적은 전기유적 중에서 석기제작장을 갖추고 하도를 중심으로 다수의 석기제작관련유물이 출토되어 석기제작 전문집단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후기의 석기제작 시스템은 각 유역 내에 위치하는 유적별로 뚜렷이 차별되지 않는 반면 팔계천 일대의 동천동유적을 중심으로 대규모석기제작이 이루어진 점이 부각된다. 즉 청동기시대 후기의 석기제작은 각 취락별로 소규모로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동천동유적을 중심으로 팔계천일대의 취락에서 공급되었을 가능성이 상정되어 동천동취락을 석기제작 전문집단으로서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천동 석기제작 전문취락의 배경은 동일한 유역의 하부에 위치한 매천동유적에서 발원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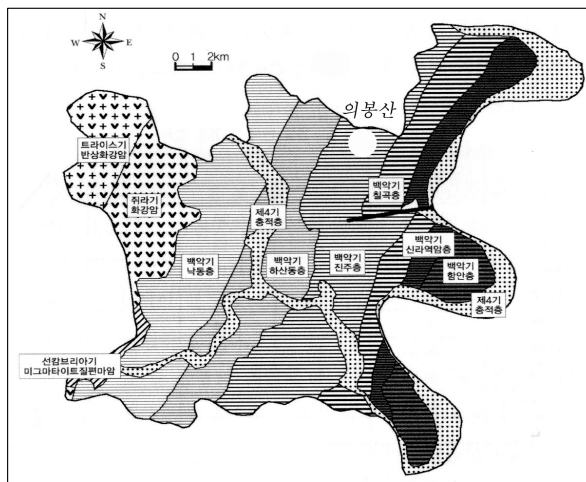
Ⅵ. 석기의 제작과 유통

1. 석재의 산지 및 조달

영남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에서 출토되는 석재유물은 기종별로 다양한 암질의 석재를 사용하여 제작된다. 이러한 석기는 각 지역마다 기종별로 특징적인 암석을 선택하여 제작되는데 이것은 석재와 유물간의 상관에 있어서 제작과 효율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암석사용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있다. 대구지역을 포함한 영남지역에서는 혼펠스라는 특징적인 암석이 석기의 제작에 주로 사용되는데 그 분포권은 영남의 경상분지이다. 그런데 전고(황창한 201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석기를 제작하기에 적합한 혼펠스의 분포는 한정된다. 특히 마제석검과 같이 장신의 석검을 제작할 수 있는 석재는 더욱 한정된다고 생각된다. 대구분지 내에서도 혼펠스산지가 일부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 자갈형태로 분포하고 모암에서 채취한 흔적도 현재까지는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앞으로 정밀한 지질자료의 축적을 필요로 한다. 유적에서 출토된 미완성석기를 관찰해 보면 원마도가 좋지 않은 각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모암에서 채취하거나 모암 근처에서 입수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석기를 제작하는데 자갈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원마도가 좋은 자갈을 이용

했던 박편의 흔적은 확인하기 어렵다. 이점은 석기제작 초기단계부터 제작에 용이한 석재를 채택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전기 후반에서 후기의 석기제작 전문취락의 경우는 주변의 역석을 이용하는 것보다 양호한 석재산지를 개발하고 그곳으로부터 석재를 입수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석기를 제작하기에 양호한 혼펠스제 석재의 산지는 어디일까. 현재까지의 자료를 참조한다면 그 후보지로서 대구지역의 서쪽에 위치한 고령의 의봉산 일대로 비정할 수 있다. 의봉산의 혼펠스는 진주층을 혹은 모화강암이 관입하면서 접촉변성작용을 받아 형성되었다. 석재의 산출 상태는 노두에서 테일러스(talus) 즉 崖錐를 형성하고 있어 혼펠스가 판상 또는 괴상으로 상부로부터 하부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다.



도면 2. 고령군의 지질과 의봉산(이보영 2008에서 수정)

이러한 혼펠스는 하천을 따라 2~4km 범위에서 석재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석기를 제작할 수 있는 양호한 석재만 확인되었다고 단순히 그곳을 석재 산지로서 규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석재산지와 더불어 석기를 제작했던 다양한 흔적들이 확인되어야 석재산지로서의 가능성을 뒷받침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고령 의봉산 일대에는 석재 혼펠스석재의 산지는 물론 이와 관련된 다수의 석기제작관련 유적이 확인된 바 있는데 이 유적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 보도록 하겠다.

2. 고령일대의 석기제작관련 유적

고령에서 석기제작과 관련된 대규모 제작장으로 추정되는 봉평리 일대의 유적이 최초로 확인된 것은 신종환(2008)에 의해서이다. 고령 봉평리 575-1유적(대동문화재연구원 2012)은 일부가 발굴조사되어 그 실체가 어느 정도 확인된 바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석기제작장 규모로서는 최대이다. 유적은 의봉산의 남서쪽에 위치한 고령천의 북쪽 충적지 일대로 하천에 의해 인근까지 의봉산의 혼펠스가 각재로 분포한다. 즉 석재의 취득이 용이하여 석기제작장으로서 최적의 입지라고 할만하다.

이외에 고령대흥리유적(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8), 캐빈리유적(대경문화재연구원 2009),

고령 봉평리 601-3유적(대동문화재연구원 2011), 고령 어곡리 225-2유적(대동문화재연구원 (2009) 등에서도 석기의 제작과 관련된 다수의 미완성품 및 박편이 출토되어 의봉산 주변에서 석기제작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봉산 일대에서 확인된 상기의 유적들은 청동기시대 후기의 유적으로 대구지역의 동천동 일대의 석기생산취락의 시기와 궤를 같이한다.



도면 3. 고령일대 석기제작 관련유적

3. 석기의 제작과정 검토

이상의 검토를 통해 대구지역에서 형성된 청동기시대 전기후반에서 후기의 석기생산 전문 취락의 등장과 고령지역의 혼펠스산지와 관련이 있을 것임을 추정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석재의 입수에 관한 형태는 어떻게 전개된 것인지 간략히 검토해 보겠다.

팔계천 일대의 석기제작 유적에서 확인된 박편과 고령일대에서 확인된 박편 양상을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점이 확인된다. 먼저 고령의 대표적인 석기제작장 유적인 봉평리 575-1유적의 박편을 살펴보면 원석으로부터 큰떼기와 잔떼기를 통해 형태를 정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박편의 크기도 큰 것으로

부터 작은 것까지 다양하게 산출된다. 즉 석기제작 단계의 1차 정형단계의 유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팔계천 일대의 동천동취락의 경우 하도에서 다수의 박편이 출토되었지만 1차 가공까지 전적으로 행해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 석기 제작실험 결과 도면4와같이 한 개의 석기를 제작하는데도 다수의 박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천동취락의 경우 다수 출토된 미완성품으로 본다면 박편의 수량은 극히 미약한 편이다.



도면 4. 석기제작실험 후 박편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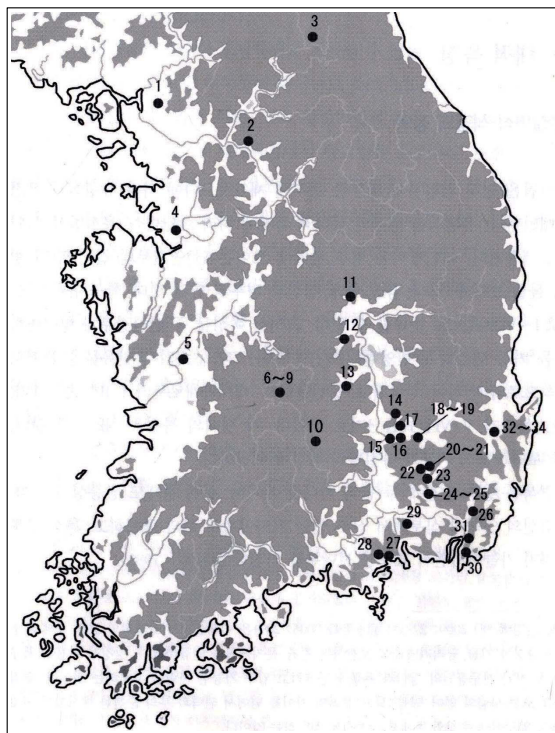
따라서 1차 정형은 산지주변에서 행한 후 취락 내에서는 2차 정형단계인 고타 및 마연을 통해 완성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고령에서 확인된 다수의 석기제작 관련유적은 주로 1차 가공단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상정할 수 있는데 고타흔이 잔존하는 미완성품과 지석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 점도 이러한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로 생각된다. 그런데 1차 정형단계를 팔계천유역의 석기제작 집단에서 직접 산지주변으로 와서 행한 것인지, 고령일대의 취락에서 정형하여 공급한 것인지는 현재로서 불분명하지만 대구권과 고령권의 집단이 석기제작에 있어서 밀접한 관련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자료가 증가됨에 따라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4. 석기의 유통

마제석기의 유통은 소형 석기류로 판단하기보다 석검과 같이 특수한 용도의 석기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 이유는 소형의 석기류를 제작할 수 있는 석재산지를 특정하는 것보다 장신의 마제석검을 제작할 수 있는 석재의 산지를 특정하는 것이 더욱 신빙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마제석검의 다양한 형식 중에서 혼펠스로 제작되기 시작하는 것은 유절병식석검부터이다. 이 석검은 전기의 이단병식석검에 비해 길이가 길어지고 제작하기 어려운 혼펠스제로 제작되어 고령 일대의 혼펠스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음을 추정할 바 있다(황창한 2011). 유절병식석검의 분포는 도면5와 같은데 그 중심은 대구와 고령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절병식석검의 분포권을 따라 기타 혼펠스제 석기의 유통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싶다.

혼펠스제 석검은 유절병식석검단계 이후의 일단병식석검 단계에 더욱 폭넓게 확산되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한 유물의 검토를 통해 앞으로의 과제로 삼겠다.



1과주옥석리 2양평상자포리 3양구송우리 4평택도진리 5부여가중리 6~9진안여의곡 10거창대야리 11문경서중리 12김천삼거동 13상주청리 I 14대구침산동 15대구천내리 16대구월성동585 17대구상인동 18·19대구시지동 I 20·21청도진라리 22청도송서동 23전청도 24·25밀양가인리 26양산소토리 27마산다구리 28마산신촌리 29창원화양리 30부산대신정 31부산사직동 32~34전경주

도면 5. 유절병식석검의 분포

(張龍俊 · 平郡達哉, 2009에서 전제)

VII. 맺음말

이상으로 대구지역의 청동기시대 취락의 검토를 통해 전기에서 후기의 석기제작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청동기시대 전기에는 취락내에서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석기를 제작하지만 인접한 취락 중에서도 석기출토 및 제작관련 유물이 집중된 상황으로 볼

때 부분적으로 석기유통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석기제작과 관련된 전문취락의 징후는 전기후반에 팔계천일대의 매천동유적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팔계천 일대에서는 전기의 매천동취락이 발전하여 상류의 동천동취락으로 거점을 이동하면서 석기 제작 전문취락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전문집단의 성격은 손준호(2010)가 제시한 바와 같이 반전업적 전문집단의 성격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석기제작 전문취락의 석재는 고령의 의봉산 일대에서 애추 형태로 산출되는 혼펠스를 사용하였음을 관련유적의 검토로서 제시하였으며, 석기의 유통에 관해서는 유절병식석검의 분포 범위와 궤를 같이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본고에서 세밀하게 다루지 못한 유물별 제작과 유통과정, 석기제작 전문취락과 기타 취락 간의 관계 등 종합적인 부분은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삼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 慶北大學校博物館 外, 2000, 『辰泉洞·月城洞 先史遺蹟』.
- 慶北大學校博物館, 1991, 『大邱 月城洞 先史遺蹟』.
-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2, 『上洞遺蹟發掘調査報告書-우방아파트건립부지-』.
-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4, 『上洞遺蹟發掘調査報告書-수성초등학교부지-』.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6, 『大邱 大鳳洞 마을遺蹟』.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8, 『高靈 大興里遺蹟』.
- 대경문화재연구원, 2009, 『高靈 快賓里遺蹟』.
- 大東文化財研究院, 2008, 『大邱 上仁洞 98-1遺蹟』.
- 大東文化財研究院, 2008, 『大邱 月城洞 1363遺蹟』.
- 大東文化財研究院, 2009, 『高靈 於谷里 225-2遺蹟』.
- 大東文化財研究院, 2011, 『高靈 鳳坪里 601-3遺蹟』.
- 大東文化財研究院, 2011, 『大邱 上仁洞 119-20遺蹟』.
- 大東文化財研究院, 2012, 『高靈 鳳坪里 575-1遺蹟』.
-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2002, 『大邱 松峴洞 先史遺蹟』.
- 裴眞晟, 2012, 「可樂洞式土器의 初現과 系統」, 『考古廣場』 11, 부산고고학연구회.
- 삼한문화재연구원, 2010, 『大邱 上仁洞 128-8番地遺蹟』.
- 聖林文化財研究院, 2009, 『大邱 月城洞 591番地遺蹟』.
- 손준호, 2010, 「청동기시대 석기생산 체계에 대한 초보적 검토」, 『湖南考古學報』 36, 湖南考古學會.
- 신중환, 2008, 「선사시대의 고령」, 『고령문화사대계1』,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편.

- 嶺南大學校博物館, 2006, 『大邱 月城洞 1275遺蹟』.
- 嶺南大學校博物館, 2007, 『大邱 月城洞 585遺蹟』.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2, 『大邱 東川洞遺蹟』.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2, 『大邱 西邊洞 聚落遺蹟 I』.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3, 『大邱 東湖洞遺蹟』.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5, 『大邱 東湖洞 477番地遺蹟』.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6, 『大邱 上仁洞 171-1番地遺蹟』.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7, 『大邱 東湖洞 451-1遺蹟』.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7, 『大邱 上仁洞 123-1番地遺蹟』.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7, 『大邱 上仁洞 152-1番地遺蹟』.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7, 『大邱 月城洞 1261番地遺蹟』.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8, 『大邱 大泉洞 497-2番地遺蹟』.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8, 『大邱 上仁洞 87番地遺蹟』.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9, 『大邱 大泉洞 511-2番地遺蹟 I』.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9, 『大邱 大泉洞 511-2番地遺蹟 II』.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9, 『大邱 月城洞 498番地遺蹟』.
- 嶺南文化財研究院, 2010, 『大邱 梅川洞遺蹟』.
- 嶺南文化財研究院, 2012, 『大邱 東湖洞 181番地遺蹟』.
- 嶺南文化財研究院, 2013, 『大邱 西邊洞 聚落遺蹟 II』.
- 이보영, 2008, 「고령군의 지리적 환경」, 『고령문화사대계1』,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편.
- 이인학, 2010, 『청동기시대취락내 석기제작양상검토』,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張龍俊·平郡達哉, 2009, 「有節柄式 石劍으로 본 無文土器時代 埋葬儀禮의 共有」, 『한국고고학보』 72, 한국고고학회.
- 趙大衍·朴書賢, 2013, 「청동기시대 석기생산에 대한 일 고찰」, 『湖西考古學』 28, 호서고고학회.
- 河眞鎬, 2008, 『大邱地域 青銅器時代 聚落 研究』, 慶北大學校 文學碩士學位論文.
- 하진호, 2013,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전기의 편년」, 『한국청동기시대편년』, 서경문화사.
- 洪周希, 2009, 「북한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전개와 석기제작시스템의 확립」, 『韓國青銅器學報』 5, 韓國青銅器學會.
- 황창환, 2011, 「청동기시대 혼펠스제 마제석검의 산지추정」, 『考古廣場』 9, 釜山考古學研究會.